



서울
운주사

온라인 매장 개설, 소매서점 활성화 위해 노력

최대규모 불서총판... 불서시장 견인

1989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서울의 최대규모 불교서점이다. 현재 임희근(49세)이 대표로 있다. 총판도메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인터넷 판매를 해오던 여시아문과 붓다북을 완전히 흡수해 사이버 영업망을 확장했다.

임희근 대표는 원래 운주사 장엄 전에 진영사현 관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 관련 불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당시(1980년대 후반)만 해도 불교서적에 관한 총판이 전문인 상태라 2-3개의 소매 서점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임 대표는 소매 서점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들이 총판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임 대표의 마음속에는 불교서적만을 위한 총판을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운주사에서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도서 장르는 법외와 예세이다. 그 다음은 경전 해설류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임 대표는 소개한다.

임 대표는 "초창기 서점 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불교 소

매 서점들도 호황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매장 수의 증가에 대해 시장 규모의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운영 방식에 있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데서 오는 영향도 있다고 임 대표는 덧붙였다.

다양해진 판매와 구매 형태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이 보편화 되고 활성화 된 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본다고 했다.

운주사의 통계로 볼 때 불교서적 시장은 그래도 매년 5-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우선 서점들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운주사는 동의한다. 그래서 운주사도 총판으로서 소매 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당연 과제로 꼽는다. 시대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주사의 계획이라고 한다. (02)3672-7181 박재원 기자



부산
영광도서

갤러리 등 문화공간 인기

40년 역사 부산의 '대표 서점'



1968년 5월 1일 문을 연 영광도서(대표 김윤환)는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는다. 창업주인 김윤환 대표는 0.5평 소규모의 점포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서점이라는 것에 착안했지만 우선 책이 좋다는 것이 문을 연 가장 큰 이유였다. 지리적 조건은 비교적 좋지 않으나 단골고객 관리를 꾸준히 했고, 한 권이라도 구하기 힘든 책을 전국에 수소문해 구해주는 열성을 보인 것이 입소문이 나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광도서에 책이 없으면 한국에 없는 책'이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절판 된 책은 출판사에 직접 연락해 구매하기도 한다. 현재 불교서적 7120종을 보유 중이다. 전국에 있는 웬만한 불서는 모두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영광도서가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데는 책을 파는 공간만이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부산시민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도 기록제가 됐다.

영광도서는 갤러리를 6년 동안 이끌어 오고 있으며 대관료가 무료여서 중견작가는 물론 신예 및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

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세미나실 사랑방에서는 출판기념회, 포럼, 불교 강좌, 중국어 특강 등 시민을 위한 무료강의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영광도서는 독서 감상문 공모, 지역 문인들을 초청해 대화와 토론의 시간도 활발히 갖는다. 거래처는 대부분 출판사들과 직거래하고, 소규모 출판사는 운주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는 구축돼 있으나 판매보다는 책 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www.ykbook.com, (051)816-9500-4 하성미 기자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번동 232-1번지

산삼이란?

•천중(진중)산삼(天中, 眞中)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 것으로 보다는 가뭄이 적어 생육이 잘 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수지가 적다. 뇌수가 가늘고 길며 약물에 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삶이 안되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지반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키워야 1남 2-3년 정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중(진중)산삼이란 절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이니 것이다.

•지중산삼(地中)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난 씨

종이 한단계 진화하여 야생장뇌에서 1-2대 지 난것이 지중산삼이며, 뇌수의 굵기가 진중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김 형태도 중간이다.

•인중, 야생장뇌 산삼(人中)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둥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이 한단계 진화하여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수가 두껍고 미에 삶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중산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나 천중(진중), 지중, 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적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수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수일때 천중(진중)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중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 사찰난방 ”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배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영으로 진행되며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화실이 크기 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연도구조 초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대우면서 생기는 목조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 롬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영인된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불량으로 인한 고장 - 통파로 인한 고장
- 도파 불량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가지고 개인 정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으면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천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실분 연락바랍니다